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후에 2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이재영 간사님을 모시고 '기독교평화주의 : 아나뱃티스트 신앙운동' 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학교 졸업감사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청파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를 골라 실천합시다.

- \* 식 당 봉 사 : 박홍재 차혜심 정연희 한상경 김현주 이광욱 정복순
- \* 3/13,20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왕영순 임미심 송동준 문복순
- \* 설 거 지 봉 사 : 이준하 노우중 고은숙 박범희
- \* 다음 주 설거지 : 조은나 김태환 하진솔 노준우
- \* 새 교 우 : 박솔잎(7여) 김범진(3남) 김미현(6여)

청파 찬양대원 명단

- 대장 : 김근중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김아영  
 소 프 라 노 : 이은자 오현정 정현주 윤성희 황선희  
 메조소프라노 : 박성희 구명자 송양진 정미경  
 엘 토 : 홍선희 김재영 정옥영 최윤희 유지은  
 테 너 : 이광섭 안길상 김근중 이종현 전 용  
 베 이 스 : 장원호 안종일 조항범 이한림 최명동 김남홍 최명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주현절 제8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4(통30). 주 우리 하나님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추운 겨울바람을 거두어 가시고 따스한 봄바람 물고 오시는 주님,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 같이 우리도, 아직 겨울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봄별이 되어 다가가게 해 주십시오. 삶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유와 해방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독재 시위의 횃불을 지켜 주십시오. 독재자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이들이 더 이상 없게 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간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맛보게 된 이들의 기쁨의 합성이 울려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9,10 ..... 인도자

♣ 교 독 문 ..... 49. 시편108편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15(통512). 내 주 되신 주를 ..... 다함께

♣ 성경봉독 ..... I. 요13:12-15 ..... 황경순 집사

..... II. 사51:17-23 ..... 권혁순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발 씻어주는 학교 ..... 김재흥 목사

..... II.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준우 우순덕 강성식 박병구 김정애 박영희 박창운 허정윤 오자영  
 임주빈 최현옥 조현권 박아영 최종원 허호범 박성실 김남종 오복순  
 임 염 정경례 이광용 형인순 장원호 박성희 심정아 양재성 임미심  
 한상균

### 월정헌금:

구명자 권혁신 김미순 김순자 박준희 이기분 이소순 이수정 배재경  
 이은자 정완수 김재광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의일 이현숙  
 황자순 차혜심 이준림 주경진 이윤정 최재욱 이수정 이경남 무명  
 LK

### 감사헌금:

방 준 장묘심 백묘현 곽새롬 양성모 허호범 박성실 무명

###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 생일감사헌금:

유상진

	장 해 속	백 해 속	백 해 속	정 두 리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노 순 옥
	임 정 자	최 경 미	임 정 자	정 복 순
	문 영 혜	이 명 희	문 영 혜	이 명 희
	안 정 속	진 정 속	안 정 속	문 금 석
	박 흥 재	곽 권 희	박 흥 재	곽 권 희
	박 호 선	허 정 윤	허 정 윤	박 호 선
	이 순 정	김 금 순	강 순 배	이 순 정
	이 형 속	권 미 속	구 성 실	권 미 속
	안 흥 속	오 현 정	정 현 주	박 찬 정
	정 영 선	이 현 속	정 영 선	이 현 속
	이 영 란	박 미 영	이 영 란	방 극 속
	박 해 경	조 향 미	박 해 경	조 향 미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교 회

# 꽃샘추위

김옥진

인사를 빠뜨려서  
되돌아 왔다

아랫목 이불 속이  
그리워졌다

3일만 목젓다고  
아양을 띤다

어차피 한 번은  
떠나야 하는 길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면 되는 걸

미적미적 하다가  
막차 놓칠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찬양 .....	특송 .....	하진솔 김서현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고된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봄은 찾아옵니다.		
다함께 : 아멘. 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잊고 꽃샘추위 같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평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겨울의 한기 가득한 세상이지만 봄의 전령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봄 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복 .....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기독교평화주의 : 아나뱃티스트 신앙운동 이재영 간사	3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한대훈 선생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박홍재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하현철 박범희 고숙이 최성애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꿈을 찾아서

살다 보니 어느새 40대 중반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굳건하지는 못했어도 헛수로 따지자면 40년 넘어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으니 '신앙'에 대해서 뭔가 깨칠 때도 된 것 같은데, 잠시나마 돌이켜본 삶은 한숨이 절로 날 뿐이다.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비유처럼, '꿈 발자국' 연구는 '꿈'을 찾기 위한 것인데 결국 '꿈'은 잊어버리고 여태 남들이 연구해 놓은 '꿈 발자국'만 살피는 형국이다. '꿈'을 찾아 나선 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때로는 '발자국'이 너무 멋있어서 '꿈'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언제 꿈의 '발자취'를 떠나서 '꿈'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숨어 있는 것일까?

그러나, 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잠시 접고 가만히 돌아보면 '발자취'에 심취해본 기억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그것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꿈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거니와, 실상 자취 없이는 꿈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꿈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 연이 닿으면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취를 뒤적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꿈에 대해 자신 있게 알려주고 안내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아직은 어떤 '사냥꾼'들의 자취를 소개할 수 있을 뿐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20세기 '꿈'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사람인 칼 라너의 기도문이다.

"주님, 어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숨어 계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당신을 알려고 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늙어버린 세상에 여전히 숨어 있는 어린이입니다. ....

저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삶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 그의 기도는 특별히 신학적이거나 심오하다기보다 평범하고 솔직하며 그래서 더 친밀하게 다가온다. 그분 앞에 혼자 서본 경험이 있는 이라면 누구든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어둠을 경험하고,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며, 추구하는 삶의 변화가 너무도 더디게 느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서도 이름뿐인 신자라는 자각이 드는 이라면 누구나 드렸음직한 기도다.

라너의 기도는 또한 갯세마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던 예수의 기도와도 흡사하다. 예수 역시 어둠을 경험했고 세상의 거부를 목도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었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최고 가치로 삼은 것으로 봐서 항상 참된 자녀가 되기를 추구했을 것이다. 2천 년 전 예수 또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해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예수의 삶은 라너에게도 모범이 되었을 것이고 그는 필시 예수의 삶을 회상하며 기도드렸을 것이다. 그의 기도의 힘은 예수를 닮은 데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꿈'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만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 그대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어쨌든 그 이는 숨어 "계시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아마도 기도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인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종교적 삶을 사는 데 근간이 되는 것은 첫째도 수행이요, 둘째도 수행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근본주의자이건 자유주의자이건 신봉 종교인 이건 기성 종교인이건 여기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 수행하지 않는 종교인은 속된 말로 무늬만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와 수행 자체에 어떤 대단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 관행과 수행 습관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기도와 수행은, 그것 없이는 참된 삶의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고 일상을 성화하기 어렵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총 인구보다 총 종교인이 더 많이 집계된다는 종교의 나라다. 그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수행에 임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나라꼴과 종교꼴과 우리의 꼴이 이 모양인지 정말 신비가 따로 없다. 비교적 관대하다는 가톨릭신자들도 나날이 늘어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갈수록 각박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혹시 이 모든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이 실천적으로 이단인 것은 아닐까? 십여 년 전에 했던 한 해방신학자의 한탄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은 실제 삶에서 실행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론에 불과한 것인가? ..... 참으로 슬픈 일은 그렇게도 많은 역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타인들을 더 배려하는 새로운 남성과 새로운 여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호세 마리아 비질) ...